



## ‘열정의 축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길, 사람, 소통’ 슬로건으로 9월 개막

매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즈음, 원주에서는 지나가는 여름의 열기를 마지막으로 터뜨리듯 열정과 생기가 넘쳐나는 신나는 축제가 열린다. 즐거움이 가득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2011년 시작돼 8회째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 9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길, 사람, 소통’을 슬로건으로 9월 3일(화)부터 8일(일)까지 6일간 원주 따뚜공연장을 비롯한 원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지상 최대·최장의 퍼레이드형 경연 퍼포먼스 축제다. 브라질에 리우카니발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초대형 특설무대, 원일로에서 펼쳐지는 참가팀 퍼레이드 경연과 함께 문화예술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돌레길 프리마켓과 치악산 한우축제를 포함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부대행사들이 펼쳐진다. 이 중에 축제 안에 작은 축재인 프린지 페스티벌은 국악, 스트리트 댄스, 뮤지컬, 연극, 마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축제다. 올해 세 번째인 프리댄싱페스타는 경연에 참여하고 싶지만 30명 이상이라는 참가 규정을 맞추기 어려운 팀을 대상으로 한다. 5~20명의 소규모 단위 팀이 참여할 수 있다. 댄싱카니발이 대규모 행진형 퍼레이드라면 프리댄싱페스타는 춤과 퍼포먼스, 신체를 활용한 오브제 형태의 공연을 경연 방식으로 선보인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지난해 해외 12개국 38팀을 포함해 총 214팀 1만3천명이 참여했고 55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의 기운을 이어가고자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지난해보다 참가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축제 외연 확장을 위해 기존 36보병사단 예하 부대로 한정돼 있던 군 참여를 확대해 전 군이 함께하는 군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8년에는 36사단 예하 9개 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5~20개 팀이 참가한다.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자매우호도시 예술단과 해외 유사 축제의 우수 팀을 초청할 예정이다.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시 예술단과 싱가포르 칭게이 퍼레이드 우수 팀은 이미 참가를 확정했다. 따뚜공연장 주차장 부지 내 상설공연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공연장이나 연습 공간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기간에는 프린지 공연장, 먹거리 부스 등 주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 기간 원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댄싱카니발 외에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원주 시티투어 버스, 팸투어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올해는 스페셜 부문의 일반팀을 없애고 대학부를 신설해 전국 대학교 무용부 학생들을 포함한 20여 개 팀이 경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부 신설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축제를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부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여름,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서 세계인의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느끼고 더불어 문화관광 제일 도시 원주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





거리가 춤춘다!  
도시가 춤춘다!

軍과 함께하는  
2019원주다이너믹  
**댄싱카니발**  
9.3(화)~9.8(일)  
원주따뚜공연장 및 원주 일대

주최 | 원주시 36사단 원주군청 DMC Carnival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국방부 전국관광공사